

Living the Lotus 3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4

VOL. 222



Rissho Kosei-kai of Kolkata,
Gaya, and Patna in India

Living the Lotus Vol.222 (March 2024)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미디어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mailto: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편집 스태프: 국제전도부 스태프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삼간다’ 는 것은 ‘자비’에서

Rev. Nichiko Niwano
President of Rissho Kosei-kai

‘삼간다’는 것은 배려한다는 것

‘내 집 초목에 있는 거미줄을 치우다 바로 그만 두었다’ 는 시가 있습니다. 료칸(良寛)선사의 다정함이 넘치는 따뜻한 한 수입니다. 무심코 치우려고 했던 거미줄, 그곳에 열심히 살아가는 작은 생명을 보고 바로 손을 멈춘 료칸씨의 호뜻한 미소까지 눈에 떠오르는 듯합니다.

그 어떤 부담도 없는 사소한 행위 속에 사람으로서 삼가는 마음과, 모든 것을 감싸안아 주는 자비심이 느껴집니다.

깊이 삼간다는 것에 대해서인데 ‘몸과 말을 삼간다’ 라든가 ‘신체, 말, 마음을 삼가는 것은 좋은 행위이다’ 라는 등, 지난 호의 법화 ‘부끄러워 하는 것’ 과 함께, 석존께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자칫 이 말을 일반적인 생활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만, 료칸씨의 시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삼간다’ 는 것은 자비와 일체인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학자이며 조동종(曹洞宗)의 승려이기도 한 나라야스아키(奈良康明)선사가 석존의 가르침은 ‘모두 다 “자비” 에 근거를 두고 있다’ 라고 말했듯이, ‘삼간다’ 는 것이 배려심을 더욱 깊이 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불교의 가르침으로써 설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료칸씨처럼 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는 부족한 제가 거기까지는…하며 금방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알아 차린다면 삼가고 배려하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奈良)선사의 말을 빌리자면 ‘자비란 자비를 실천하는, 즉 훈련에 의해 더욱 깊어지고 성숙되어 가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았으니까 자비심이 일어

나고 깊은 삼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언행을 삼가면서 연이 닿아 가는 가운데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는 자타일체의 생명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바로 그곳에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실천에서부터 세계의 문제까지

그런데 개조님께서서는 본 회의 근본도량인 대성당이 건립되던 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3월4일에 “교단은 대가람이 생기면 기성화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크니까 훌륭한 교단인 것이 아니며, 또한 가람이 생겼으니까 그것으로 교단이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모이는 동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항상 활기차고 겸손하게 깊이 삼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지역 사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온기와 건강을 제공한다 -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교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달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회의 ‘한끼 바치기 운동’ 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는 쇼로쿠신토야마토야마(松緑神道大和山) 교단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달에 몇 번, 각자의 식사를 거른 만큼 헌금을 한다는, 그야말로 자비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사회공헌에 까지도 결실을 맺게 되는, 일상에서 하는 이러한 활동을 앞으로도 소중히 지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종교자 평화회의등, 종교나 종파의 틀을 초월한 동지들이, 세계적인 과제 해결을 목표로 대화를 거듭해 나가는 것은, 참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겸허하게 자제심과 삼가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조님께서 그 토대를 쌓아 주셨던 것은 저희들에게는 하나의 긍지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활동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항상 삼가는 마음을 잊지 말고, 자비라는 석존의 가르침의 근본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삼가며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킨다” 는 석존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자기’ 를 ‘우주 전체와 일체인 나’ 라고 받아들이면, 몸(행동)과 말을 삼가하는 것에 대한 의미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가슴 깊이 파고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의 어떤 곳에서도 몸(행동)과 말을 삼갈 것을 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성』 2024년3월호



화택(火宅)을 벗어나 지금, 안온한 부처님의 세계로

오크라호마 교회
로저 윌리엄스

이 체험 설법은, 2023년3월2일, 오메연성도량에서 열린
해외 수양생들의 졸업설법때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 이름은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2010년 입정교성회 오크라호마 교회에 입회하였습니다. 입정교성회 신앙을 통해 제 인생을 바꿔준 불교와 법화경과 만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크라호마 교회(교성회) 승가분들의 상냥함과 따뜻함, 개조님 가르침과 법화경을 일상적으로 친숙하게 만들어준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저를 부처의 세계로 인도해준 작용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설법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의 체험을 이야기 하여, 가르침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기원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미국 중남부에 위치하는 오크라호마주의 아주 평범한 가정에, 2명의 남매 중 장남으로써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동생과는 6살 차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텍사스주 출신이며, 어머니는 위스콘신주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제2차세계대전의 퇴역군인으로써, 전쟁 후에는 점령군으로써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교사가 되어 마을의 작은 대학교의 부학장 겸 경영책임자로 일하셨으며,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아주 상냥하고 사려 깊은 관대한 마음씨를 가진 분들로, 저는 리버럴과 기독교 신앙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뭔가 나쁜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디만, 당시의 저에게 기독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디다.

엄밀하게 말하면, 당연히 저는 부모님의 애정이 넘치는 가정환경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성장 했겠지만, 저의 병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충분히 살려지지 못했습니다. 제 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반성 불안장애'와 '충동 억제장애'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러한 진단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자기 멋대로' '문제아' 라는 딱지가 붙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서는 유소년기부터 저의 행동을 신

경 쓰시며, 엄격하게 예절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 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는 점점 부모님에 대해 지겹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때로는 화를 내며 증오심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유소년기의 저를 단적으로 표현해보면, 충동성이 아주 강한 아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식사 중에도 자리를 뜨며, 옷을 갈아 입는 도중에 갑자기 놀기 시작해 버리고. 또 길을 걷다가도 신경 쓰이는 쪽으로 달려가 버리는 등, 부모님께서서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으로 아마 마음 편한 날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이, 집에서 두 블럭 정도 길을 걸어가면



오크라호마 교회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로저씨

‘고령자·장애인 케어 홈’ 인 낡은 집이 있었는데, 아직 어린 제가 그 집 현관 포치에 앉아서 입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저를 걱정한 어머니가 “로저!!!” 하며 얼굴색을 바꾸어 소리치며 데리러 왔던 일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계속되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던 저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충돌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여러가지 체벌이 있었지만, 저는 ‘별 받고 말지’ 하며 점점, 별을 받는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제 문제 행동은 성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점점 확대되어, 언제부터 인가 물건을 훔치거나 파괴행위 위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아직 심각한 범죄에 손을 대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문제행동에 대해, 약물 치료법이 필요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 이윽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때부터 시너를 피우기 시작해서 그 후,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갔습니다. 제가 청년기를 보냈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운동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의한 공민권운동, 드러그컬처 등이 활발했던 격동의 시대로, 저는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로저, 지금의 네 모습을 보면, 네 스스로가 너를 괴롭게 하고 있단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 집 이사를 계기로 새로운 환경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행동을 조심할 것이라고 결심하였습니다만, 알코올과 마약은 너무 쉽게 손에 들어왔으며, 더욱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 결국에는 18살에 형무소에 들어가 20살에는 정신과 병원에 수용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때 저는 ‘나를 찾기(자아발견)’ 를 목표로 모험 여행을 떠났습니다. 히치 하이킹으로 미국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만, 잠재적인 위험과 부모님을 걱정 끼친다는 것에 무심했던 저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혼자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일주일에서 한달 이상 계속되었으며, 많은 만남과 비일상적인 체험이 즐거웠으며, 여러가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회

피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부모님의 애정이 듬뿍 담긴 도움 덕분에, 저는 심리학 학사를 취득하여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77년에는 오크라호마주 복지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혜택 받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1981년에 다시 마약과 알코올에 빠지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결근을 반복하다가, 끝내 근무중에 알코올과 마약에 손을 대게 되어 이미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가 되 버린 것입니다. 이윽고 저는 우울증에 걸려서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들볶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적인 상황때, 알코올 의존증에서 회복한 고등학교 친구가 의존증 자조(自助) 그룹에 참가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해 준 것입니다. 제가 28살때였습니다.

자조(自助)그룹이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마음을 알아주며 격려하며 그 난관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임입니다. ‘알코올을 그만두고 싶다’ ‘두 번 다시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의존증에 걸린 사람은 음주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음주를 정당화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조금이라면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마시다 보면, 이전과 같은 주량으로 되돌아 버리는 것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부정의 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스스로가 ‘병’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 자신도 당초에는 ‘나는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야’ 라며 병에 걸렸다는 것을 부정하며, 의존증 회복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친구들이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서 죽어간다는 사실에 공포를 아주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자조그룹에 참가함으로써, 단주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집회에서는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체험담을 들었는데,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들과의 이러한 교류가,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 단주를 성공시키는 커다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조 그룹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체험담을

듣다보니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야. 내 이야기다’ 하며 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의존증에 대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느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를 출발하여 뉴욕, 그리고 유럽을 향하는 도중, 오크라호마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존증 회복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던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병의 심각함을 정직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병은,

일종의 자기 기만과 자기 부정을 수반하며, 또한 제 자신도 의존증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안고 있었던 정신적인 문제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도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녀의 임신을 계기로 저희들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의존증 회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82년에 겨우 단주에 성공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진전섬망증이나 발작 등의 이탈증상(금단현상)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결점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점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 저에 대해서, 제 부인은 스스로의 문제와 마주하지 못한 채로 집요하게 저를 공격하며,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모두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중에 부인의 가족들로부터,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감정장애로 힘들어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따로 세리피를 받아 보거나, 부부가 함께 결혼 카운셀링에도 다녀 보며 서로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함께 지내기가 어려워져서 저희들은 1992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부부 양쪽이 친권을 주장하면 격렬한 친권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친권에 대해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이혼 후에도 서로 협력하여 아이들의 양육에 관여할 수 있는 공동 친권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있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남은 로스앤젤레스에 살며, 오크라호마에 사는 장녀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쁘게도 제일 첫 손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오크라호마 교회 활동 멤버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기에 종교에 대해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만, 의존증 회복 프로그램을 체험해봄으로써, 종교적인 실천이 중요한 의의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도교와 불교 등 종교에 관한 서적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불교로, 저는 불교에 대해 더욱 배울 장소와 그룹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증에서는 회복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충족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과 중국의 불교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하는 수행자나 리더가 없다는 것이 큰 장벽이었습니다.

2010년의 어느 날, 저는 친구의 권유로 입정교성회 오크라호마 교회에서 열린 근본불교 교실에 참가하였습니다. ‘일상 생활을 위한 불교’ 라는 사고방식에 매력을 느꼈으며, ‘사제’ ‘팔정도’ ‘육파라밀’ 등 근본불교를 배웠을 때, ‘이렇게 훌륭한 시각과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었는가’ 하며 긴 시간 찾아 구했던 것을 발견한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와 동시에 불교가 일상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문제 해결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어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매번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승가와 더불어, 불교를 일상 생활 속에 살린 아주 알기 쉬운 습학 프로그램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목요일 밤 명상 그룹



도사 역할에 임하고 있는 로저씨

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하게 되어, 경전 독송, 좌선, 보행명상을 처음 경험하였으며, 그 후 선데이 서비스(법회)나 법좌수행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좌 수행은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 나누며 공유한다는 점에서, 제가 1년간 다녔던 알코올 의존증 자조 그룹의 집회와 닮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수행임을 인식하였습니다. 단지 크게 달랐던 점은, 법좌 리더가 참가자의 고민과 괴로움에 대해 ‘가르침에 의해 행복해졌으면’ 하며 불교 진리에 근거한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부처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입정교성회에 입회하고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동경 입정교성회 본부에서 열린 국제전도부 리더 교육에 참가하면서 아주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육에서는 ‘법화 삼부경’의 집중강의가 열렸는데, 저는 비유품의 ‘삼차화택의 비유’의 해설을 듣고, 제 마음을 주시하며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기에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번뇌대로 살아왔던 저를 ‘삼차화택의 비유’에 비추어 보면 저는, 노는 것에 빠져서 집이 불타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부처님)가 세 가지 마차라는 방편(진실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만, 생각해 보면 제가 의존증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려고 자조 그룹에 들어갔던 것이, 법화경과 만나기 위한 부처님이 주신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에서 회복한 후에도 저는 매주, 자조 그룹의 회합에 출석하여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저와 같이 의존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서포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라고 전하며, 불교에 흥미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와 함께 오크라호마 교회에 가 보지 안으실래요?” 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저의 힘든 체험을 같은 의존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릴 수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자조 그룹 멤버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삼차화택의 비유’는, 그 어떤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도 눈 앞에 나타난 고민과 괴로움을 부처님 가르

침에 맞추어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입정교성회에 입회하여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화택에서 탈출하여 안온한 부처님 세계라는 대백우차를 받은 듯한 기분입니다.

현재 저의 일과는, 매일 아침 집 법당에서 경전을 독송하고, 그 후 20분간 명상을 하며, 여러가지 불교에 관한 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특히 입정교성회의 선조공양은 입정교성회에 입회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선조관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제 정신적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부처님께 감사하며 선조님과 은사님, 친구들에게 독경의 공덕을 바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 무모하게도 마약과 알코올을 남용하여 소홀히 여겨왔던 고귀한 생명에 대해 감사의 염(念)이, 선조공양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는 매주 4~6번, 직접 가거나 또는 zoom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크라호마 교회의 승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북미 국제전도 센터와 국제전도부까지, 큰 승가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알코올 의존증에서 회복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기쁨을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입정교성회 오크라호마 교회에 인도해 준 부처님의 커다란 자비와 작용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에는 모두 부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만나는 연(緣)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보살행 실천에 더욱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하여 내가 알아차린다
남을 위하여 설한 까닭으로

Rev. Nikkyo Niwano
Founder of Rissho Kosei-kai





아까 ‘해설(解説)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함으로써 나 또한 ‘법’의 진실에 철저해지며,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석존께서 ‘내가 옛 부처님 처소에서 이 경을 받아 가져 읽고 외워서 사람을 위하여 설한 까닭으로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상불경보살품)라고 언명하셨습니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란, ‘부처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였으므로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법화경 가르침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어지간한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아직도 ‘법’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럴 때, 해설서를 다시 읽어 보거나 선배에게 상담을 하거나,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 보거나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은사인 아라이스케노부(新井助信) 선생님께서는 글씨를 아주 잘 쓰셨었습니다. 어떻게 배우셨는지 여쭙어 보면 “습자학원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숙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우타(小唄: 에도시대에 유행했던 가요)나 샴시엔(일본의 현악기)과 같은 예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예능이 더욱 연마된다고 합니다. 입회 되도록도 그와 같습니다.

이론만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임해보면서, 여러 사람들과 접해보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해 봄으로써, ‘방편력’이 몸에 배어, 보살로서의 실력이 향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서는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가르침을 알게 하자’는 그 노력과 공리가 나를 성장시키고,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분고분 듣고 멋지게 구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되도리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것 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실천입니다. 체험입니다. 체험을 통해 인간성이 향상되며, 체험을 쌓아 나가면서 비로소 인간성에 중후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선(禪)에 ‘한 치 앞이면 한 치의 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이 한 치 타는 시간만큼의 좌선을 해도, 그만큼은 부처의 마음으로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 사람 인도하면 한 사람만큼의 부처’라고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부처’란 ‘깨달은 사람’이므로, 한 사람을 인도하면 그만큼의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오랜 세월의 체험을 통해, 절대로 틀림이 없다고 보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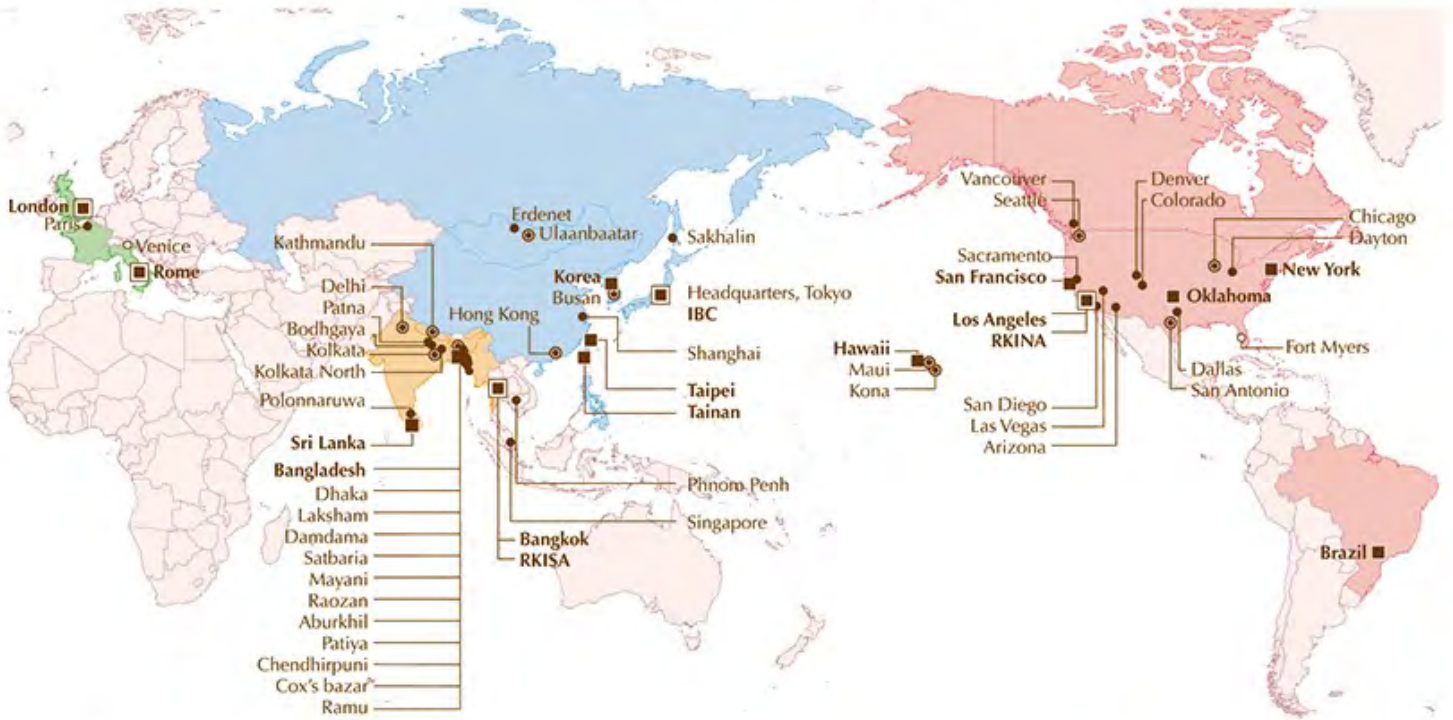
어쨌든, 법화경은 현실적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여 구제하지 못한다면, 이 가르침을 설하신 석가모니의 마음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점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서 더욱더 정진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A Global Buddhist Movement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